

특집

김대중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김동노 (연세대)

국문요약

이 글은 김대중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통해 사상가로서 그의 모습을 새롭게 밝히려 한다. 그런 의도에서 이 글은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주의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립적 관계에 있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는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김대중의 사상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김대중의 사상체계 속에서 민족주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민족주의는 모든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라는 한정된 범주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김대중의 보편주의 속에 나타난 특수주의의 요소이다. 그러나 그의 민족주의에서 ‘우리’라는 본원주의의 특징이 강조되는 것은 민족 내부의 단결에 국한되며 북한과의 통일을 언급할 때 가장 그러하다. 그의 민족주의에는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열린 민족주의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세계주의로의 전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동시에 김대중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시킴으로써 민족주의와 보편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김대중이 추구한 보편성의 또 다른 모습은 실용성의 가치를 지닌 시장경제이다. 김대중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관통하는 흐름이 바로 이 실용성이며, 북한과의 통일 논의나 일본과의 관계 재정립에 있어서 그가 주목한 것도 실용성이다. 북한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그는 예견하고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주장했던 것이다.

주제어: 김대중, 민족주의, 세계주의, 보편성, 실용성, 민주주의, 시장경제

I. 들어가는 말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과 남북한 정상회담 20주년을 맞는 이 해에 김대중의 정치적 행동과 생각에 관해 되돌아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민주화와 평화통일이라는 두 핵심어가 가장 강력히 표현된 것이 두 역사적 사건이며, 그 중심에는 김대중이라는 정치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대중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지금까지 김대중 연구가 주로 정치인으로서의 김대중 혹은 사회개혁가로서의 김대중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글에서 시도하는 것은 사상가로서 김대중의 모습을 새롭게 밝히는 것이다.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했던 정치인의 사상적 체계를 검토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자신의 사상적 체계를 세우기보다는 정치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활동에 몰두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김대중은 정치인으로서도 독특하게 수많은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다수의 저작을 통해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분명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서전은 물론이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대중경제론』, 『대중참여경제론』, 『옥중서신』 등의 저서들을 통해 그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그가 남긴 다양한 종류의 연설문은 그의 정치적 사상과 실천의 연결고리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안전에 대해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그리고 정치적 사상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반영하려고 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

여 김대중의 정치적 사상은 어떻게 확립되었고 또 어떻게 정치적 실천과 연계되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특히 관심을 두는 그의 생각은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 두 이념에 대한 김대중의 생각을 통해 그가 지향하려고 했던 세계관은 어떤 것이었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더불어 김대중은 어떻게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주의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표면적으로 대립적 관계에 있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에 대한 김대중의 사상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그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의 정치적 행동과 실천적 의지는 전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가를 먼저 찾아보고, 그 속에서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에 관한 그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이해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김대중의 인식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가 평소에 강조했던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인여천(事人如天)’, ‘실사구시(實事求是)’와 같은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경천애인’은 김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가치관으로 여겨진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덕목은 아마 그가 평생 정치를 하면서 지향점으로 삼은 것이며 동시에 인간 김대중의 사상적 나침판이다. 같은 뜻으로 그는 사람 대하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사인여천’의 덕목도 많이 인용했다. 현실 정치에서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인본주의의 정신이며, 그 정신이 제도적으로 실현된 것이 민주주의일 것이다.

더불어 김대중이 많이 강조한 가치가 ‘실사구시’이다.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라는 ‘실사구시’의 정신은 조선 시대에는 실학을 발생시킨 바탕이

었으며,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는 헛된 공리공론을 버리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김대중이 달리 표현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감각’과 맞닿아 있는 생각이다. 그런 만큼 정치인으로서 김대중은 원리와 원칙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실용성의 감각을 동시에 지니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아마도 이 실사구시의 정신을 현대적 제도로 표현한다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했을 때 ‘경천애인’, ‘사인여천’, ‘실사구시’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생각에서 시작했던 김대중의 가치관이 서구에서 발생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제도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목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김대중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실현하는 제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전통적 정신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서구의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절대적 가치인 동시에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며”, “민주주의가 없는 곳에 올바른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없으며 시장경제가 없으면 경쟁력 있는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¹⁾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전제조건인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대중이 추구한 ‘경천애인’, ‘사인여천’, ‘실사구시’의 덕목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제도는 그의 사상체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총체적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대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닌 가치와 제도를 추구한 것

1)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 2000년 12월 10일,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대중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가 추구한 보편적 가치의 틀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자리매김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김대중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추구한 것은 무엇이며, 이 둘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며, 그의 구체적 정치적 실천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민족, 민족주의, 그리고 통일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이론적 논의와 논쟁이 있었다. 민족주의의 발생과 정치적 효과에 관해 최소한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이론이 제시되었다.²⁾ 가장 고전적인 이론은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혈통이나 종교, 언어, 역사와 같은 문화적 유산에 의해 민족주의가 결정된다는 본원주의(primordialism)의 입장이다. 흔히 인종적(ethnic)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이 입장은 민족이 주관적 의식이나 감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구조주의(structuralism)의 이론은 민족주의가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입장에서 특히 주목하는 사회적 조건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생이다. 겔너(Ernest Gellner)가 주장하듯이, 산업화로 인해 농업사회가 무너지면서 이질성을 지닌 개인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

2) 민족주의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에 관해서는 김동노, 「민족주의의 다원화와 이념 갈등」 『동방학지』 159집 (2012), 367~420쪽 참조.

기 위해 민족주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³⁾ 이와 유사하게, 네언(Tom Naim)은 자본주의의 불균등한 발전이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제국주의의 침입을 맞이한 제3세계 국가에서 이에 저항하기 위해 민족주의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⁴⁾

이와는 달리 민족주의가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를 연구한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는 이전에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던 개인들을 묶어 스스로를 하나의 공동체로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민족주의가 만들어졌다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을 발전시켰다.⁵⁾ 민족의 인위적 구성에 관한 주장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인데, 이 입장에서는 민족이 실재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실천적 범주에 불과하며 민족과 민족주의는 우연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주장한다.⁶⁾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 사이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주의에 관한 논의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족주의는 강력한 정치적 실천의 도구이며 대중을 동원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족주의가 사회적 현상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공통된 인식은 찾을 수 있다. 다른 집단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두 요소를 필요로

3)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4) Tom Naim, *The Break-up of Britain* (London: New Left Books, 1977).

5)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6) Graham Day and Andrew Thompson, *Theorizing Nationalism*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2004).

한다. 그 하나는 ‘우리(민족)’와 ‘그들(민족 외부)’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민족)’ 내부의 결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⁷⁾ 결국, 민족주의의 가장 핵심은 우리 민족의 범주에 누구를 포함시킬 것이며, 민족 내부의 결속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흔히 ‘우리(민족)’라는 집단은 인위적으로 구성되며 또한 여러 조건에 따라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려는 주체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다양한 민족의 개념과 민족주의가 서로 경합하고 경쟁하게 된다.

우리의 민족주의도 당연히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한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민족주의를 둘러싸고 상당히 강한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다. 한편으로는 민족, 반공, 안보, 친미를 민족주의의 핵심 요소로 주장하는 측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통일, 자주, 반미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⁸⁾ 전자는 이승만 이후로 박정희와 뒤이은 군사정부에 의해 한국 정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되었고, 후자는 이러한 독재정권에 맞서는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 만큼 전자는 지배 엘리트가 국가의 정치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국가주의의 성격이 강한 ‘국가 민족주의’가 된 반면, 후자는 민족구성원 전체를 하나로 묶어 통일을 추구하는 ‘민족적 (혹은 인종적) 민족주의’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민족주의의 지형 속에서 김대중

7) 김동노, 「해방공간의 국가건설과 다원적 민족주의」, 김동노 외 공저, 『민족과 국민, 정체성의 재구성』 (서울: 해안, 2009), 27쪽.

8) 몇몇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민족주의의 대립을 주장하고 있다. 가령, 김수자,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 『사회과학연구』 14권 2호 (2006), 44~78쪽; 전상숙, 「친미와 반미의 이념 갈등」 『동양정치사상사』 10권 1호 (2011), 147~172쪽 참조. 특히 전상숙은 민족주의의 대립 구도를 반공=반소=보수=우익=친일민족주의=(친)정부의 한 축과 공산=진보=좌익=반일 민족주의=반정부의 다른 축이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은 어떤 민족주의를 제시하였고, 그가 정치적 이념으로 혹은 실천으로 보여준 민족주의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보기로 한다.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은 해방 이후 곧 시작되었다.⁹⁾ 해방과 함께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남과 북에서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되면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 세력은 민족을 하나로 묶는 민족주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이념적 편향성에 따라 일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민족을 구성하게 되었다. 여기서 배제의 기준으로 작용한 것은 반공의 이념이었고,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식민지 시기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들이 반공을 통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의도로 더욱 적극적으로 반공과 민족주의의 결합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경향은 뒤이어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 이승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산주의의 선동에 빠져 나라를 팔고 민족을 남의 노예로 만들려고 활동하는 분자들은 동족(同族)이라 할 수 없고”, “한인(韓人)으로서 공산당이 된 사람은 한인의 대접을 받을 수 없다.”¹⁰⁾는 식으로 배타적 민족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승만을 포함한 지배집단은 민족주의를 반공이라는 지배 이념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주의로 전환시켰으며, 반공과 안보를 내세운 배타성은 그 이후 박정희와 군부 집단이 계속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한층 강력한 형태로 지속되었다. 특히 박정희는 안보와 반공에 더하여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을 동원하는 체제를 만들어갔다. 자유와 인권은 유보당한 채

9) 해방공간에서 형성된 민족주의의 다양성과 대립에 관해서는 김동노, 「해방공간의 국가건설과 다원적 민족주의」 참조.

10) 대한민국국방부, 「李大統領 對北放送」, 「李大統領 平壤同胞에 告함」 『韓國戰亂一年誌』 (서울: 대한민국국방부, 1951), C-1, C-20쪽.

개인은 국민으로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도록 강요되었다. 따라서 국가 민족주의는 이념의 차이에 따라 민족 구성원의 일부를 민족에서 배제하면서도 국가에 의한 개인의 동원과 억압을 항상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민족주의는 한편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¹¹⁾

이러한 흐름에 맞서 지배집단에 저항하는 쪽에서는 국가 민족주의와는 다른 민족적 (혹은 인종적) 민족주의를 지향해왔다. 이 전통은 이승만에 맞서 민족 연합을 추구했던 김구에서 비롯된다. 그는 우파적인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버리지 않은 채 좌파를 정치적 이념집단이 아닌 민족의 일부로서 포용하는 포괄적 민족의 범주를 설정했다.¹²⁾ 해방 이후 김구의 태도가 일관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의 의지를 드러낸 이후에는 좌우합작을 지지하면서 미소 양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통일이라는 이념에 입각한 민족적 민족주의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는 “무엇을 가리켜 좌라고 하며 우라 하며 또 누구를 가리켜 애국자라 하고 반역자라 하는가.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서는 삼천만이 단결하여 일로매진할 뿐이다.”¹³⁾라고 언급하면서 민족적 통합을 강조했다.

이후 반공과 안보의 논리 그리고 근대화를 위한 동원의 논리에 맞서 저항집단은 통일과 자주를 강조하면서 이념적 차별성을 뛰어넘는 민족적 민족주의를 발전시켰다.¹⁴⁾ 저항 담론으로서 민족적 민족주의는 다양

11) 김동노, 「한국의 국가 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현상과인식』 34권 3호 (2010), 212쪽.

12) 김동노, 「해방공간의 국가건설과 다원적 민족주의」, 53쪽.

13) 김구, 『백범어록』 (서울: 사계절, 1995), 75~76쪽.

14) 김동노, 「민족주의의 다원화와 이념 갈등」, 409~10쪽.

한 갈래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는 국가주의와 반공주의가 결합된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 ‘민족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본원적으로 구성된 민족에 지고지선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보다 강한 배타성을 띠고 있으며, 모든 외부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급진성을 보여준다. 가령, 백기완은 한국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인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외국의 영향과 침입도 몰아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⁵⁾

‘재야 세력’에 의해 주도되던 이 흐름은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권에 전파되면서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을 경험하면서 강력한 반미주의로 진행되었다.¹⁶⁾ 이렇게 하여 민족주의는 경제발전과 같은 국가의 아젠다가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을 영구화하려는 미국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자주와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민족적 이상의 실현으로 확대된 것이다.¹⁷⁾ 더구나 학생운동권 가운데 민족 문제를 중시한 민족해방파(NL)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하는 급진적 면모를 보이면서 친북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저항 담론으로서 민족주의에 나타난 또 다른 흐름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보편주의의 가치를 민족주의에 접목하려는 경향이었다. 이는 독재체제가 국가 민족주의를 그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게 됨에 따라 이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우는 흐름이 민족주의를 통해 표출된

15) 백기완, 『백기완의 통일이야기』 (서울: 청년사, 2003).

16) 커밍스는 1980년대에 시작된 반미시위의 시금석은 광주민주화운동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미의 선봉에 선 학생들은 미국이 군부의 쿠데타에 개입했으며 광주의 무자비한 진압을 지원했다고 믿고 있었던 반면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커밍스는 미국의 부인이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에 관해서는 브루스 커밍스, 「한국 반미주의의 구조」 『역사비평』 62호 (2003), 60쪽.

17) 채장수,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자주노선」 『한국동북아논총』 42호 (2007), 248~52쪽; 김재영, 「반공국가의 위기와 민족주의의 부상」, 전재성 엮음, 『복합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서울: 사회평론, 2017), 307쪽.

것이다. 박정희 시기 야당의 위치에 있었던 민주당의 기본적 정치이념이 이러한 지향을 보여주었으며, 김대중도 이 입장에서 민족과 민주라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려 했다. 그는 “민족의 정통성이 없는 곳에서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이 설 수 없다.”¹⁸⁾고 주장함으로써 민주 체제의 확립과 통일의 정당성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민족주의의 지평 속에서 볼 때,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이승만과 박정희로 이어지는 지배 담론으로서의 국가 민족주의에 맞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면서도, 민족주의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접목시키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의 민족주의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가장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민족 구성원 전체를 민족의 범주에 포함하려는 본원주의적 특성이다. 그는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념에 상관없이 민족 구성원 누구나 포함되는 민족 공동체를 설정하고 있다.¹⁹⁾ 우리 민족은 오랜 기간 독자성을 지켜온 문화적 공동체이며, 따라서 단일 민족으로 통일국가를 유지하면서 축적해온 문화적 역사적 유산은 통일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북한을 방문한 뒤 그는 “평양도 가보니 우리 땅이었고, 평양에 사는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며, “북한은 다 같은 우리 강산이고 다 같은 우리 민족이 사는 곳”²⁰⁾이라고 말하여 본원적 민족주의의 생각을 보여주었다. 그

18) 김대중, 「해방 50주년과 민족 통일(1995년 1월 20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엮음, 『김대중전집 II』 제17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25쪽.

19) 김동노, 「한국의 국가 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216쪽.

20) 김대중, 「북한방문 성과 대국민 보고 연설」, 2000년 6월 15일,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렇다면 반만년 이어온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민족의 본원적 책무일 수밖에 없다. 김대중이 이렇게 본원주의의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민족주의의 기반으로서 공유된 핏줄과 문화적 유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민족 전체의 지지 기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대중은 통일의 당위성을 주로 민족주의의 본원적 요소에 많이 기대어 설명하고 있는 반면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하던 시절의 김대중은 통일의 필요성을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박정희 정권이 반공의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반통일적 전략을 추구했던 만큼 통일은 곧 독재체제의 존재 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²¹⁾ 동시에 그는 “민주 체제의 확립 없이는 통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²²⁾라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민주화를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민주화는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이었다. 결국, 민주주의와 통일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수단과 목적의 관계인 것이다.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실용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찾아진다. 분단 체제가 가져온 엄청난 비용을 생각할 때 통일의 경제적 이익은 쉽게 이해된다. 막대한 규모의 군비 축소와 병력의 감축에 따른 새로운 인력 활용 가능성은 물론이고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결합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서 김대중은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실제로 그가 정권을 획득한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통일이 가져올 군비 감소와 병력 감축은 남북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실리이며, 역으로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모두에게 엄청

21) 김동노, 「한국의 국가 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217쪽.

22) 김대중, 『대중경제론』 (서울: 청사, 1986), 216쪽.

난 재난으로 작용함을 강조했다.²³⁾ 그렇기 때문에 그는 취임할 때부터 정경분리에 근거한 경제 협력을 북한에 요청했고, 실제로 북한 방문 시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이후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남만 좋아도 안 되고 북만 좋아도 안 되고 양쪽이 다 좋아야 오래가고 그래야 화해가 있고 협력이 있다.”²⁴⁾는 점을 강조했다.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은 남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게 요청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원주의와 실용성이 결합된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그의 집권과 함께 한국 민족주의의 전체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반공, 안보, 친미, 근대화로 연결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혹은 국가 민족주의)와 통일, 자주, 민주, 반미로 특징지어지는 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혹은 민족적 민족주의)의 이항 대립 구도가 김대중의 집권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고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김대중에 의한 다양한 민족주의의 통합은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의 내부 분열이 김대중을 통해 접합되었다. 상당 기간 독재정권에 의해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김대중은 ‘재야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였고

²³⁾ 김대중, 「통일과 민족의 장래(1994년 4월 25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엮음, 『김대중전집 II』 제17권, 221~22쪽.

²⁴⁾ 김대중, 「북한방문 성과 대국민 보고 연설」.

중요한 고비에서 이들과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물론 인종적 민족주의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쪽에서는 김대중의 온건한 민족주의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그의 집권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도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김대중과 ‘재야 세력’ 그리고 학생운동권 사이에 여전히 차별성이 있었지만 본원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김대중의 민족주의에 대해 이들도 일정한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하게 된 것이다.²⁵⁾

김대중에 의한 또 다른 차원의 민족주의의 통합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와 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반공과 안보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승만과 박정희가 주장한 민족주의는 실제로 국가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국 근대화와 같은 국가적 아젠다의 수행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개인을 억압적으로 동원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저항집단의 민족주의는 자주와 통일을 주장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화를 추진했지만 항상 지배집단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러한 이항 대립 구도가 김대중의 집권으로 인해 해소되기 시작했다.

김대중은 통일과 민주화를 양 축으로 하는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안보를 추구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둘러싼 대립적 요소들이 그의 생각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는 형태가 되었다. 김대중 정권의 성립과 함께 민족주의가 통일과 안보를 동시에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되면서 이전에 지배집단이 주장한 안보와 저항집단이 지향한 통일이 민족주의

²⁵⁾ 물론 김대중과 재야 세력 그리고 학생운동권 사이의 결합은 불완전한 것이어서 이후에도 수시로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김대중의 집권 이후 이뤄진 중요한 경제 개방 정책과 그에 따른 외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대해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가령, 백기완, 『백기완의 통일이야기』 참조.

안에서 통합된 것이다. 통일 담론이 더 이상 통치권 밖에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주도되면서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전환되었으며,²⁶⁾ 통일의 지향이 반드시 반미와 친북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북한에 맞서는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는 취임하면서부터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적 단결과 사기 넘치는 강군을 토대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겠다.”²⁷⁾라고 함으로써 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른 한편으로 김대중이 지향한 민족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됨으로써 기존의 서로 다른 두 민족주의가 가진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반공-안보의 국가 민족주의와 자주-통일의 민족적 민족주의는 모두 배타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전자는 반공 이념에 따라 민족 내부를 나누고 그 일부를 배제하는 배타성을 갖고 있으며, 후자는 반미로 표현되는 민족 외부에 대한 배타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자주-통일-안보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반미와 반북을 모두 배제하고 민족 내부는 물론이며 민족 외부에 대해서도 열린 민족주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집권 이후 그는 북한과의 관계와 더불어 미국과의 관계도 공고히 하여 국제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민족주의가 가진 배타성을 극복하려 했다. 이러한 노력이 가장 적절히 표현된 사례는 그가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김정일로부터 미군의 남한 주둔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²⁸⁾ 민족적 민족주의와 국가 민족주의에

26) 김수자,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 55쪽.

27)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1998년 2월 25일,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28) 김대중은 미군 주둔이 남한의 안보와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일·중·러의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과 평화유지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을 보다 확실히”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해 서로 배제되던 미국과 북한을 암묵적 동의의 방식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그의 민족주의는 민족 내부의 배타성은 물론이고 민족 외부에 대한 배타성도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의 민족주의에는 민족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요소가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주의로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민족 내부의 통합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족 외부에 대한 배타성을 상당한 정도로 낮추었기 때문에 민족을 넘어 세계주의로 발전될 수 있었다. 민족을 단위로 안팎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민족주의와 달리 세계주의는 민족을 넘어서는 세계를 단위로 민족들이 상호연결되는 체계(networks of connection)를 추구하는 이념이다.²⁹⁾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이 세계체계론(world-systems theory)을 주장한 이래로 세계를 분석 단위로 하여 그 속에서 민족(국가)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이 되었다. 얼핏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는 개념적 정의에서 이미 상호모순 혹은 충돌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민족과 세계 그리고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어떤 관계에 놓이는 가는 선형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경험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논리로 김정일을 설득하여 미군 주둔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김대중, 「유럽의 회 연설」, 2001년 12월 11일,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²⁹⁾ Nye, Joseph, "Globalism versus Globalization," *The Globalist*, April 15, 2002, <https://www.theglobalist.com/globalism-versus-globalization/>

실제로 김대중의 사상체계에 있어서도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형태이다. 민족은 세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세계를 지향할 때 민족주의가 가진 효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가능한 이유는 물론 그의 민족주의가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이기 때문이다.

흔히 전통적 민족주의의 단점을 얘기할 때 그 대안으로 많이 제시되는 것이 열린 민족주의이지만 실제로 민족주의가 어떻게 세계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밝힌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민족주의가 폐쇄성과 배타성을 뛰어넘어 열린 민족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다양성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독립된 정체성과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민족과의 교류 및 평화공존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³⁰⁾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의 개방성은 민족 지상의 배타적 의식을 지양하고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도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방성을 가질 때 민족주의는 보편적 인류애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긍정적으로 확대시키는 하나의 이념적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³¹⁾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이러한 열린 민족주의의 특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기에 세계주의로 발전될 수 있고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충돌 없이 하나의 사상체계 속에서 공존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김대중의 정치적 실천과 사상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가 민족을 중요시하는 것이 곧 세계 시민에 대한 존중과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30) 김영명, 「한국 민족주의의 쟁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권 1호 (2016), 239쪽.

31) 전재호, 『민족주의들』 (서울: 이매진, 2019), 52쪽.

되돌아보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고통 받는 사람들,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의 모든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³²⁾해왔다고 고백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개별 인간의 자유와 존엄 보장을 우리 민족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민족의 구성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³³⁾ 개인이 민족의 일원이든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이든 누구나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이 그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철학적 인식과 함께 김대중이 민족주의를 세계주의로 확장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세계화의 흐름이었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퍼지면서 어느 국가와 민족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삶의 조건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는 민족주의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민족주의도 국민국가 내부에서의 민족주의로부터 세계화 속의 민족주의로 발전 변화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각 민족과 협조하는 민족주의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협조해나가는 그러한 민족주의가 될 것입니다.³⁴⁾

그가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적으로 협조하는 민족주의’는 바로 세계주의와 다르지 않다. 김대중 정권이 시작된 이후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는

32) 김대중, 『행동하는 양심으로』 (서울: 금문당, 1985), 25쪽.

33) 김학재 · 박홍규, 「홍익인간 건국 이상과 한국 정치」 『단군학연구』 41호 (2019), 88쪽.

34) 김대중, 「통일과 민족의 운명(1993년 11월 30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엮음, 『김대중전집 II』 제16권, 394쪽.

과정에서 이 생각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는 민족주의를 계속 유지하려는 도전에 대해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슬기로운 응전을 해야 하며, 우리나라도 세계국가의 일원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도 세계 시민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WTO 체제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모든 국가가 경쟁과 협력하는 가운데 생존하고 번영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민족주의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받아들이고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주의야말로 ‘제2의 건국’ 아래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³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김대중은 우리가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당위적 이유를 모든 인간의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외부로부터 오는 세계화의 압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 내부의 조건이 이러한 세계주의를 추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내부로부터도 세계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세계주의로 나아가기에 따라 우리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의 실용성을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내부요인으로부터 추동되는 세계주의의 실용성에 관해 그는 특히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우리가 선택한 경제발전의 정책적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으로 인해 허리가 잘려져 있어 마치 섬과 같은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섬나라인 영국이나 일본과 달리 해양으로 통한 세계로의 진출도 활발하지 않아 마치 동떨어진 위치에 자리 잡은 고립된 섬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고립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북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이 세계화를 주체적으로 이

35) 김대중, 「대한민국 50년 경축사」, 1998년 8월 15일,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끌어 가는 방안이 될 것인데, 김대중은 바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는 지속적으로 평화 체제의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의 철도 연결을 제안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 합의했고, 유럽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그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했다. 이것이 완성되면 한반도 종단 철도가 중국 대륙 횡단 철도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고 동아시아와 유럽이 하나로 묶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통합 효과를 설명하면서, 그는 “세계 인구의 3/4이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일구어내는” 두 지역을 연결하게 되면 “물류비가 30% 이상 절감되고 수송 기간도 1/3로 단축”³⁶⁾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두 지역의 발전과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기대이다.

물론 철도를 통한 두 지역의 연결이 세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철의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고 한국이 중국과 시베리아를 통해 유럽에 연결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통합된 유라시아의 시발점과 종착점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부산에서 시작하는 뱃길이 일본과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면 세계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는 분명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 끝에 붙은 조그만 혹은 같은 나라가 아니라 대륙과 대양을 잇는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³⁷⁾

이러한 지정학적 실용성과 연계하여 그가 제시한 세계화의 또 다른 유

³⁶⁾ 김대중, 「유럽의회 연설」.

³⁷⁾ 김성재, 『김대중 대통령』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09), 78쪽.

용성은 한국이 취한 경제발전 전략에서 비롯된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수출지향의 전략을 채택했다. 한정된 국내 시장과 제한된 자본 축적이라는 상황에서 수출을 통한 상품시장의 개척과 자본의 축적이라는 목표 설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전략이기도 했다.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대중도 이러한 정책적 결정에 대해 일정한 정도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한국 정부의 외부지향형 경제개발 전략은 ‘현명한’ 선택이었고, 수출을 통한 ‘경이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칭찬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연평균 성장률을 20% 이상 유지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³⁸⁾ 전두환 정권에서 간헐적 위기를 맞기는 했지만 ‘3저 현상’(저유가, 미 달러화의 약세, 국제 저금리)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동안 축적된 문제가 노출되면서 결국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는 경제 위기의 근원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발전하지 못한 것에서 찾았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믿고 있는 그가 보기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개입하면 시장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부정부패를 가져오면서 경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고 그는 진단하고 있다. 보호주의 원칙하에 국내 시장의 경쟁도 무서워 정부의 특혜에 매달린 기업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펼 수는 없으며,³⁹⁾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은 전혀 확보될 수 없게 된 것이다.

38) 김대중, 『대중참여경제론』 (서울: 산하, 1997), 197~98쪽.

39) 김대중, 『대중경제론』, 205쪽.

김대중은 세계화 시대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인식했다. 일국의 시장이 아니라 세계의 시장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국내에서조차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기업으로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계주의에 입각해서 볼 때, 국내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는 끊임없이 개방경제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특정 재벌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치 경제를 청산하고 외국 상품과 외국 자본에 대해 문을 열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⁴⁰⁾고 제안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힘에 맡길 것은 맡기고,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거나 환경을 보존하거나 독과점을 규제하는 등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의 눈에는 ‘문어발식 정부’가 ‘문어발식 재벌’보다 더 나쁘게 보였다. 문어발식 정부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는 곧 경제와 정치의 분리를 의미한다. 두 영역이 분리된 상황에서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만 정치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의 민주화가 선결 조건이 된다. 민주화되지 않은 정치는 끊임없이 시장에 개입하고 지대추구(rent-seeking)의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경제는 반드시 민주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그는 항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가진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두 제도의 병행 발전을 지론으로 삼았다.

한국이 외부지향의 경제발전 전략을 취한 이상 세계주의에 입각한 자

40) 김대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 기조연설」, 1999년 2월 26일,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유로운 시장경제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그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기업은 물론이며 한국의 국민,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김대중의 일관된 생각이다. 그는 특히 『대중경제론』과 『대중참여경제론』에서 이 문제에 관해 상당히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⁴¹⁾ 한국은 오랜 기간 정경유착이 일어나 불필요한 보호무역의 장벽을 세워둠으로써 재벌기업의 독과점 지위를 강화시켰고 그 피해는 질 낮은 제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정책을 도입하여 기업이 보다 시장 기능에 의해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일반 국민이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가의 경제적 체질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세계화와 세계주의의 틀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큰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그 이익을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실천으로 옮겨졌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경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고 한국경제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와 금융의 대외의존도가 경제 위기 이후 계속 높아짐으로써 새로운 짐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시되었고, 자본시장의 과도한 개방으로 인해 자본의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⁴²⁾

⁴¹⁾ 김동노, 「농업·농민문제와 대중경제론」, 류상영·김동노 엮음, 『김대중과 대중경제론』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3), 25쪽.

⁴²⁾ 윤상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경제와사회』 83호 (2009), 61쪽.

일부에서는 김대중 정권이 시도한 시장경제의 전면적 도입 의도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의 제도적 관행이 지속됨으로써 둘 사이의 충돌과 모순이 나타났다는 비판도 있었다.⁴³⁾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양산이 가져온 사회적 문제도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 당시의 사회적 모순의 심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시간적 급박성 등을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그 이후 실제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이전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상승하여 글로벌 차원의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다만 이들 기업의 성장이 가져온 이익이 기업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와 개인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세계주의에 입각한 전면적인 문호의 개방이 때로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실용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김대중 정권 시기의 대일정책 특히 일본문화의 전면 개방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정권에서나 그러하듯, 우리는 항상 대일관계에서 많은 굴곡을 경험하게 된다. 어느 시기에는 유화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갈등 관계에 들어가기도 한다. 김대중 정권 시기의 대일관계는 초기의 화해 분위기, 이후 갈등 관계의 형성, 그리고 후기의 갈등 봉합과 관계 복원으로 특징지어진다.

대일관계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이다. 갈등을 가져오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식민지 시기의 집합적 기억

43) 구현우,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도론적 함의」 『국정관리연구』 6권 2호 (2011).

에 대한 역사 인식의 대립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다. 최근 들어 일본의 정치권이 보수화되면서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토권에 대한 시비 걸기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⁴⁴⁾ 일본의 과거사 사죄 거부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치권의 망언은 정도의 차이나 방법의 다양성은 있지만 항상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변수’가 되는 것은 일본의 태도가 아니라 한국의 대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은 오랜 기간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젊은 의원 시절인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논의가 진행될 때 야당 의원으로서도 예외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여주었다, 물론 그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이나 식민지 배상의 규모가 지나치게 적음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지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자체는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지녔었다. 과거사를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일본’이라는 비난을 하면서도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협조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⁴⁵⁾

무엇보다 김대중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원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진정한 과거 반성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구축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대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하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말해야 한다.”⁴⁶⁾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44) 곽은영, 「김대중 정권기 한일관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3쪽.

45) 류상영, 「김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권 1호 (2011), 137~38쪽.

46) 김대중, 「새로운 한일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1992년 8월 17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엮음, 『김대중전집 II』 제15권, 564쪽.

의 기억으로 인해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미래를 향한 걸음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이전에는 미래를 위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과거사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 다른 정권과는 큰 차별성을 보여준다. 박정희 정권은 식민지 배상을 받는 조건으로 국교 정상화를 한 이후 대체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불문으로 부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⁴⁷⁾ 반면에 그 이후의 정권에서는 과거사 문제나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에 대한 긴장이 완전히 완화되기 이전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질식할 것 같은 고착 상태를 지속시켰다.

다행히 김대중 정권은 초기에 일본의 유화적인 태도로 인해 원만한 한일관계가 쉽게 만들어졌다. 1998년 대통령 취임 후 곧 일본을 방문하여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한일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한일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되었다. 물론 이 선언은 당시 일본 오부치 수상의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2000년부터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발생하고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양국관계가 점차 악화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이에 얽매이지 않고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면서 갈등 관계로 중단되었던 일본 문화 개방을 확대하여 한일관계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던 것이다.

이렇게 김대중은 과거를 넘어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관계를 구축했다. 갈등 속에서 일본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즈음에 그

47) 南基正, 「韓國民族主義의展開と日韓關係」 『日本研究論叢』 24號 (2006), 230面.

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않는 민족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민족도 역시 불행합니다.”⁴⁸⁾라고 하여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열었다.⁴⁹⁾ 김대중에게 있어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한일관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일본문화의 개방이었다. 그래서 취임 이후 줄곧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추진했는데, 그는 1998년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처음 방문하여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일본문화 개방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했다.

나는 먼저 새 시대의 한일 우호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진출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입니다. 문화는 상호교류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국교 정상화 후 30여 년이 지나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첫발을 내딛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⁵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김대중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화 개방을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된 논리는 일본문화에 동질화될 위험성, 일본의 저질 대중문화로 인한 폐해, 개방으로 인한 국내 문화산업의 위축,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갖는 역사적 특수성 등이었다.⁵¹⁾ 개방에 대한 반대는 주로 일본 퇴폐문화의 저급성과 일본 대중문화 산업의 경쟁력 우위에 대한 우려를 중심

48) 김대중,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위한 만찬 연설」, 2002년 3월 22일,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49)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한일 역사공동연구 기구’ 설립이라는 잠정적 해결책으로 귀결되었다.

50) 김대중, 「일본 국회 연설」, 1998년 10월 8일,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51) 곽은영, 「김대중 정권기 한일관계」, 87쪽

으로 전개되었다. 청소년들 사이에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등의 일본 문화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개방이 가져올 피해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반대한 것은 당연히 문화예술 산업 종사자였다. 그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일단 정부는 일본문화 개방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면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도록 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그로서는 일본문화의 개방이 한국 문화산업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문화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문화예술계 인사를 초청한 모임에서 그는 “일본문화라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문화가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 속으로 뻗어나 가려면 가장 가깝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 일본부터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⁵²⁾라고 언급했다.

한류를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에 그는 이미 우리 문화의 경쟁력 확보가 곧 문화 수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 문화산업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이다. 실제로 그 이후 한국문화가 일본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일본에서 엄청난 약진을 했다. ‘쉬리’와 같은 영화가 일본 흥행에 성공했고, 드라마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한류를 일으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우려했던 한국의 게임 산업도 오히려 개방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로 인해 국내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세계 시장

52) 김대중, 「문화예술계 인사 초청 오찬 말씀」, 1998년 10월 21일,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진출의 기회를 마련했다.⁵³⁾ 결국 일본문화의 개방은 일본에서 보다 한국에서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이 예견한 일본문화 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세계주의의 실용성이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김대중은 보편성을 지닌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치를 추구했다. 인간의 행복, 존엄, 자유, 평등, 복지 등의 가치였다. 이 가치들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속에 그는 평생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키기 위해 애썼다. 비록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상적 뿌리는 우리의 전통 속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경천애인’이나 ‘사인여천’, ‘이민위천(以民爲天)’ 등의 덕목을 강조하고 맹자의 민본주의를 중요시했던 이유도 그런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동시에 그는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리공론이 아닌 현실적 기반의 사고를 하면서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시장경제와 부합한다. 이런 방식으로 서구적 제도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리 전통 속의 가치관과 일치시킴으로써 보편성의 사상체계를 만들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도 그의 사상체계 속에서 상호모순 되지 않은 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는 민족을 강조하면서도 민족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곧 민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은 그의

53) 박은영, 「김대중 정권기 한일관계」, 97쪽.

민족주의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실용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동시에 그의 사상은 세계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민족과 국가들 사이의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이라는 평등한 관계를 설정하여 민족주의와 모순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듯 그의 생각의 밑바탕에는 모든 개인 그리고 모든 민족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놓여있다.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로써 민주주의는 시간과 공간의 상황 속에서 변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이고 민주주의를 변형시킨 다른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도 그는 거부했다. 박정희가 주장한 민족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앞에 수식어가 붙는 어떤 민주주의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싱가포르의 리관유(李光耀) 수상이 주장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는 아시아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든 중국이든 인도이든 어디에서나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는 보편성의 가치이다. 어떤 이유로도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평등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김대중의 사상체계 속에서 민족주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민족주의는 모든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라는 한정된 범주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그가 민족주의를 주장할 때 일정한 정도로 민족 본래의 타고난 요소에 기반한 본원주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는 김대중의 보편주의 속에 나타난 독특한 특수주의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그의 민족주의 주장에서 본원주의의 특징이 보이는 것은 대부분 민족 내부의 단결을 강조할 때이다. 북한과의 통일을 언급할 때 이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니 **당연히**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이 바로 본원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위성에 기반한 민족주의에는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열린 민족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민족주의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적 충돌 없이 보편성을 추구하는 세계주의로 전환될 수 있었다.

김대중의 민족주의가 특수주의를 넘어 보편성으로 전환되는 또 다른 방식은 민주주의와의 접합이다. 이 결합은 특히 민족 내부의 특수주의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유효하다. 민족주의는 흔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보다는 개인을 억압하고 개인을 민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묶음으로써 개인성을 소멸시키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민족주의의 고유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민족주의가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⁵⁴⁾

민족주의가 민족 구성원에 대해 그리고 민족 외부의 타자에 대해 갖는 태도에 따라 민족주의는 개인에 대한 억압과 폭력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자유의 신장과 관용의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가능성 가운데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 되어야만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외부에 대한 관용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⁵⁵⁾ 이런 맥락에서 김대중은 민족주의가 민주적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래야만 “대외적으로는 독립과 공존을 양립시킬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통합과 다양성을 병행”시킬 수 있다.⁵⁶⁾ 이런 식으로 김대중은 민족주의가 민족 외부의 ‘그들’과 협력하고 민족 내부의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족주의의 특수주의가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결합되면서 민족주의를 넘어

54) Calhoun, Craig, “Nationalism and the Public Sphere,” in Jeff Weintraub and Krishan Kumar, eds.,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55) 김동노, 「민족주의의 다원화와 이념 갈등」, 393~94쪽.

56) 김대중, 『옥중서신 1』 (서울: 시대의 창, 2009), 40쪽.

세계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김대중이 추구한 보편적 가치의 또 다른 모습은 시장경제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는 분명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제도와 결합 되어야만 내재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경제의 가치란 곧 효율성과 실용성을 의미한다. 김대중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실용성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북한과의 통일을 논의할 때나 일본과의 국제관계를 재정립함에 있어서 그가 가장 주목한 것은 실용성이다.

북한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그는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소모적 군비경쟁과 인력 낭비를 방지하고 남북한의 통합경제가 구축되었을 때 그리고 남북한의 협력 속에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으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실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또한 일본에 대한 문화개방으로 인해 우리 문화산업이 질식할 것이라는 많은 우려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이것이 가져올 한국문화의 세계화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도 예견하고 있었다. 이것이 아마 그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감각’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많은 우여곡절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고 해결해야 할 문젯거리도 계속 발생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김대중은 포기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대립과 갈등을 맞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통과 타협을 계속 추진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연평해전이 발생하면서 이전에 경험하기 힘든 갈등 구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을 방문하여 6·15 선언에 도달함으로써 남북한의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문화개방을 실시한 이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고 문화개방을 확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런 식의 문제해결에 있어 그는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태도로 접근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역사 왜곡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일본문화에 문을 열었고, 전쟁의 기억이 아직 생생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의 사상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정치적 실천과 연계되었는가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많은 현실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그의 사상을 정치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이나 현실 정치참여 과정 속에 위치시켜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새롭게 시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최근 들어 『김대중 전집』이 완간되어 새로운 자료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향후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기대된다.

■ 접수: 2020년 10월 31일 / 심사: 2020년 12월 7일 / 게재확정: 2020년 12월 7일

【참고문헌】

- 김 구, 『백범어록』, 서울: 사계절, 1995.
- 김대중, 『행동하는 양심으로』, 서울: 금문당, 1985.
- _____, 『대중경제론』, 서울: 청사, 1986.
- _____, 『대중참여경제론』, 서울: 산하, 1997.
- _____, 『옥중서신 1』, 서울: 시대의 창, 2009.
- 김성재, 『김대중 대통령』,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2009.
- 백기완, 『백기완의 통일이야기』, 서울: 청년사, 2003.
- 전재호, 『민족주의들』, 서울: 이매진, 2019.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 Day, Graham and Andrew Thompson, *Theorizing Nationalism*,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2004.
- Gellner, Ernest,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Nairn, Tom, *The Break-up of Britain*, London: New Left Books, 1977.
- 곽은영, 「김대중 정권기 한일관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김동노, 「농업·농민문제와 대중경제론」, 류상영·김동노 엮음, 『김대중과 대중경제론』,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3, 19~44쪽.
- _____, 「민족주의의 다원화와 이념 갈등」 『동방학지』 159집, 2012, 367~420쪽.
- _____, 「한국의 국가 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현상과인식』 34권 3호, 2010, 203~224쪽.
- _____, 「해방공간의 국가건설과 다원적 민족주의」, 김동노 외 공저, 『민족과 국민, 정체성의 재구성』, 서울: 해안, 2009, 25~66쪽.
- 김수자,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 『사회과학연구』 14권 2호, 2006, 44~78쪽.
- 김영명, 「한국 민족주의의 쟁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권 1호, 2016, 217~247쪽.
- 김재영, 「반공국가의 위기와 민족주의의 부상」, 전재성 엮음, 『복잡성과 복합성의

- 세계정치』, 서울: 사회평론, 2017, 278~343쪽.
- 김학재·박홍규, 「홍익인간 건국 이상과 한국 정치」 『단군학연구』 41호, 2019, 61~101쪽.
- 구현우,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도론적 함의」 『국정관리연구』 6권 2호, 2011, 33~73쪽.
- 류상영, 「김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권 1호, 2011, 131~169쪽.
- 윤상우, 「외환이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경제와사회』 83호, 2009, 40~68쪽.
- 전상숙, 「친미와 반미의 이념 갈등」 『동양정치사상사』 10권 1호, 2011, 147~172쪽.
- 채장수,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자주노선」 『한국동북아논총』 42호, 2007, 239~264쪽.
- 커밍스, 브루스, 「한국 반미주의의 구조」 『역사비평』 62호, 2003, 45~84쪽.
- Calhoun, Craig, "Nationalism and the Public Sphere," in Jeff Weintraub and Krishan Kumar, eds.,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pp. 75~102.
- 南基正, "韓國民族主義の展開と日韓關係," 『日本研究論叢』 24號, 2006, pp. 211~239.
- 대한민국국방부, 「李大統領 對北放送」, 「李大統領 平壤同胞에 告함」 『韓國戰亂一年誌』. 서울: 대한민국국방부, 1951.
- 김대중, 「새로운 한일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1992년 8월 17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엮음, 『김대중전집 II』 제15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558~564쪽.
- _____, 「통일과 민족의 운명(1993년 11월 30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엮음, 『김대중전집 II』 제16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392~403쪽.
- _____, 「통일과 민족의 장래(1994년 4월 25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엮음, 『김대중전집 II』 제17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209~227쪽.
- _____, 「해방 50주년과 민족 통일(1995년 1월 20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엮음, 『김대중전집 II』 제18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23~36쪽.

- _____,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1998년 2월 25일,
 <대통령기록관 자료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_____, 「대한민국 50년 경축사」, 1998년 8월 15일,
 <대통령기록관 자료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_____, 「일본 국회 연설」, 1998년 10월 8일,
 <대통령기록관 자료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_____, 「문화예술계 인사 초청 오찬 말씀」, 1998년 10월 21일,
 <대통령기록관 자료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_____,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 기조연설」, 1999년 2월 26일,
 <대통령기록관 자료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_____, 「북한방문 성과 대국민 보고 연설」, 2000년 6월 15일,
 <대통령기록관 자료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_____,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 2000년 12월 10일,
 <대통령기록관 자료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_____, 「유럽의회 연설」, 2001년 12월 11일,
 <대통령기록관 자료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_____,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위한 만찬 연설」, 2002년 3월 22일,
 <대통령기록관 자료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Nye, Joseph, "Globalism versus Globalization," *The Globalist*, April 15, 2002,
 (<<https://www.theglobalist.com/globalism-versus-globalization>>).

Nationalism and Globalism of Kim Dea-Jung

Kim, Dong-No (Yonsei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I intend to shed a new light on Kim Dae-Jung's political thoughts by analyzing his nationalism and globalism. More specifically, I investigate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distinctiveness of his nationalism and globalism, and the way he reconciled the contradictory elements in the two ideologies. Nationalism takes a particular position in the overall framework of his political philosophy, since he generally put emphasis on the universal values, such as human equality, freedom, democracy etc. While he stressed the primordial 'Weness' in his nationalism, however, he never evinced exclusiveness on 'Others' as well. His nationalism, therefore, inherently contained the potential to overcome the narrow confinement of nationhood and advance towards globalism. Also, he elevated nationalism to the status of universalism by combining it with the universal values of democracy. Another effort to introduce universalism to his arguments of nationalism and globalism was his focus on the efficiency and the practicality of the market economy. He legitimated the necessity to ameliorate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oth with North Korea and Japan on the basis of practical interests. Although he relied upon the rhetorics of nationalism and globalism in his attempts to facilitate th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he anticipated enormous economic benefits from the amicable relationships with the two nations. This anticipation made him to pursue the future oriented policies during his presidency, despite the deep-wounded historical memories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Korean war.

Keywords: Kim Dae-Jung, Nationalism, Globalism, Universal Values, Democracy, Market Economy, Practicality

김동노(Kim, Dong-No)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사회의 거시적 변화를 역사사회학 사회사상 사회운동 분야에서 연구해 왔다. 특히 한국사회의 근대성 형성, 민족주의, 민주화, 시민사회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근대와 식민의 서곡』,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공공성”, “National Identity and Class Interest in the Peasant Movements of the Colonial Period” 외 다수가 있다.